

개혁교회 예배를 위한 지침 (Part 5)

- 회중기도 (Congregational Prayer)

By W. L. Bredenhof
trans. by Seok-Jun Yun

W. L. Bredenhof는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랭글리(Langley)에 있는 캐나다 개혁교회의 동사목사입니다.

이 글은 클라리온 Volume 57, No.2 (January 18, 2008)에 실렸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개혁교회 예배의 기초 원리들과 예배의 각 요소들에 대한 소개, 죄의 고백과 사죄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설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보통 따르는 것은 일종의 회중으로부터의 반응이랄 수 있는 찬양과 기도이다. 이 특별한 순서에서 나는 우리가 자주 “회중 기도”라고 묘사하는 요소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한다.

성 경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나 하더라도, 기도는 어느 정도, 우리 예배의 언약적 구조에서 본질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물이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응답한다. 우리는 사람이 반응하는 방식 중 하나가 기도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딤후2:8과 같은 본문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증거들이 사도시대로부터 기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심지어 그 기도가 중세 교회 때 라틴어로 행해지고 있을 때에도 말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그런 종류의 기도를 회복시킬 필요가 없었다. 기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기도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에서는 오직 특정 종류의 기도 곧, 미사의 중심에 사용되는 기도들만이 남아 있었다. 중보(intercession)의 기도 또는 “회중 기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칼빈이나 부셔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공중예배의 성경적 요소를 회복하였다.

그들은 단지 교회의 교부들과 초대교회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하였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 기초하였다. 그들은 딤후2:1-8과 같은 본문을 명백하게 교회가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위해 중재해야만 한다고 명령하신 것으로 보았다. 마태복음 5:44에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9:38의 말씀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셨다. 빌립보서 4:6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 - 그리고 이러한 더 많은 본문들이 있다.

시점과 내용(Timing and content)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필요들, 곧 교회 내적인 것들과 교회 외적인 것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도록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점의 문제도 있다 - 이러한 기도를 예배 안에서 할 때, 언제가 적절한 시간인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는 분명 자유가 있다(환경의 문제 -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글을 보라). 만약 회중들 다수의 마음 속에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목사는 이것을 첫 번째 기도에서 이미 내어 놓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회중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중보기도는 예배의 마지막 부근에 남겨두게 된다.

이 것은 자주 설교에 대한 응답과 결합된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본문으로부터 특별히 선포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그 특별한 본문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적용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드릴 것이다. 중보기도가 적용의 기도 “편승(piggy-backing)”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요소는 없긴 하지만, 몇몇 경우들에 있어서는 분리하는 편이 더 나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설교의 마지막과 두 번째 기도의 사이에는 약간의 예전적 간격을 가지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목사가 “아멘”이라고 말한 후에, 응답의 찬송이 있고, 이어서 봉헌과 그 후의 다른 찬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를 위하여는 십 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종교개혁 당시 제네바에서 행해졌던 것 처럼 설교 이후에 동일한 선상에서 즉시로 짧은 적용의 기도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가 찬송으로 인해 설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다 - 그러한 경우에는 중보기도와 적용의 기도가 조합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중 보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들 중 다수가 전통적인 양식(pattern)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좋은 양식들이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명령된 것은 아니며 좋은 지침이다. 오전 예배 시에는 보통 목사가 지역 회중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져 온다. 오후 예배의 두 번째 기도 때에는 일반적으로 목사가 지역 교회의 바깥에 있는 다양한 필요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회중을 인도한다. 이것은 고정적인 것(set in stone)은 아니며, 성경적인 요구도 아니다. 하지만 이는 기도를 조직적하도록 유지하고, 기도가 무감각해지고 장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목사들은 보통 지역 교회의 필요들을 열거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만, 회중 바깥에 있는, 중보기도에 기술되는 정기적인 필요들의 목록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현명해야 한다. 그리고나서는 이 요소들이 정기적으로 기억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확실해야 한다. 부수적으로, 성도들의 가족들이 매일의 정기적인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기교(Mechanics)

회 중기도의 기교에 관한 짧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자. 일전에 나는 내 교리 공부반 학생들에게 누구든 기도의 기교에 대해 토론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질문으로 인해 나는 다른 누군가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 본 것이다. 그들이 결코 이에 관하여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중 기도의 실제에서도 여전히 자의적인(self-consciously)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의 첫 번째 인칭은 복수형이다: “우리는”, “우리들”, “우리의.” 이는 우리 주변의 많은 비개척교회들과 비교해볼 때 현저한 차이점이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예배 인도자가 자주 그 첫 번째 인칭을 “나는”, “나를”, “나의”라고 단수로 사용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는 회중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단지 자신 앞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종종 이 문제로 씨름해왔다. 결코 이것을 스스로는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아마도 내가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합한 문구를 기다리면서, 그리고나서 그 말씀을 바꾸어 말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그 문구들이 항상 다가와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목사가 말했던 것을 잊어버리곤 했다. 둘째로 이것을 적용하는데 있어 나는 단지 사람들의 우리 중에서 개인으로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이것은 더 이상 회중기도가 아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성 경은 우리에게 회중적 기도의 기교에 대하여 아무런 정형화된 가르침도 주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기도가 찬송처럼 조화롭게 암송되는 것이 꽤 적절하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실마리를 잡았다면, 우리가 회중으로서 기도할 때 최상의 것은 목사의 말씀을 마음 속으로 복창(echo)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첫 인칭을 복수로 사용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 개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목사는 인도하는 목소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회중은 그 목소리를 자신의 마음 속으로 복창한다. 그것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을 목사가 암송하면 회중의 편에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나는 이것을 마스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새신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중의 기도의 실재를 위해,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수행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만 한다.

예배는 일이다

우리가 회중기도와 거기에 포함된 노고를 조심스레 생각해 볼 때, 공적 예배 속에서 회중은 비활동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사실상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심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셈이다! 랭글리(Langley)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6개월 가량의 기간을 가졌다. 거기에서 나는 강단 뒤편보다는 오히려 신도석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 때 나는 강단의 다른 편에서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되는 것 만큼이나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다.

한 때 어떤 이들은 “예배”라는 말이 동사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것은 아마도 예배 속에서의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주하다. 기도와 함께, 그들의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그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 그들의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데에서 그러하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주일에서 뿐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예배 동안과 예배 이전의 시간 모두에서 이 예배의 요소에 주의깊게 반응함으로써 내게 용기를 주시기를...